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5월 11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29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우리 가족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정을

이뤄가게 하시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김 여 진 -

저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생활을 하던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득하며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찬송하게 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남자 친구를 사귀면서 시어머니가 되실 은혜와진리교회 수구역장님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예배 광경이 낯설고 설교말씀을 다 이해하기 어려워 한동안은 수동적인 태도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제하는 동안 남자 친구 가족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예배에 참석하곤 하였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주일에도 자주 출근하거나 신혼 재미에 빠져 여행을 다니느라 교회에 가지 않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구역예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라던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 유산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생활이 조금씩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진지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1년 후에 또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를 출산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태어난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아이가 ‘영아 연축’이라는 질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신경에 이상이 생겨 앞으로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하여 하나님까지 원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매달리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저는 ‘영영’ 울면서 잘못했다고,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앞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겠다고, 제 아이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간구하였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교회의 교구와 구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저에게 한없는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이가 치료가 잘 되었다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상태가 좋아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일은 매우 보기 드문 경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 저는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미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깨어 홀로 TV를 보다가 예수님을 믿는 예쁜 남녀가 결혼식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집안으로 시집을 온 덕분에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복중의 복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 대한 이해심과 고마워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순종적인 성품을 지니고 가족에게 헌신하는 남편에게 매우 미안하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입술로 불평 불만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가정을 가볍게 여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처럼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남편도 변화되었습니다. 나날이 믿음이 자라며 구역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부모를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족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와진리교회의 교인이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영혼의 양식을 삼으며, 구역장이 되어 주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타내며 자랑하므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인해 항상 행복해하며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당1로 144 T. 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서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2권 (제11단원 : 교회)

(제48과) 교회란 무엇인가?

- 본문 : 마태복음 16:15-20

• 요절 :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 찬송 : 245장(새찬송가 210장), 246장(새찬송가 208장)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보통은 건물로서의 교회당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편의상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말로서 사용된 희랍어 ‘에클레시아’는 “부르다” “불러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회중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나 회사와 같은 조직체가 아니라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교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 교회의 기원

교회는 유대인의 종교인 유대교를 단순히 이어받은 것이나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하여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엡 3:5)라고 하였고, 곧 이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엡 3:9, 골 1:26)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구약 시대에는 비밀로 감취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5)고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고전 12:13).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이 땅에 탄생한 것입니다.

2. 교회의 의미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엡 1:23, 골 1:18, 골 1:24). 그리고 교회는 하나라고

하였습니다(엡 4:4). 따라서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회는 동일한 여러 교회와 교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한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엡 5:23, 골 1:18). 머리는 권위와 지도적인 위치를 상징하며, 생명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머리가 없는 몸이 존재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로 이미 교회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이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지라도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의 여러 직분을 통하여 교회의 지체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 많은 지체가 있고(고전 12:12~14), 모든 지체는 제각기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고전 12:15~19). 그럼에도 이 모든 지체가 성령 안에서 상호 협력하여 교회의 목표를 이루어 나갑니다.

둘째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습니다(고전 1:2). 이렇게 부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 18:20).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요 14:16,26). 이렇게 오신 성령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시고(엡 2:18),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롬 8:26,27).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권능을 주시고(행 1:8, 살전 1:5),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십니다(엡 4:11). 그리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주십니다(요 16:13). 이처럼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역사하십니다.

넷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7)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다섯째로, 교회는 건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처소로서의 교회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